

# 한국교회 출석교인 10명 중 4명(39.5%)은 ‘명목상 교인’!

우리 연구소는 지난 11월 23일, 한국교회 최초로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 조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명목상 교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2018 로잔 운동에서는 ‘1)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소속이 없거나, 2)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고백이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며, 3)신앙의 성장을 위한 규칙적인 교회 활동이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4)헌신하지 않고 피상적인’ 이라는 4가지로 명목상 교인을 범주화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명목상 교인을 신앙에 관한 ‘정체성’, ‘신념’, ‘활동’을 포함하는 몇 가지 로직을 통해 접근해 보았다. 스스로 기독교인 인식,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근거, 구원의 확신, 신앙생활의 목적, 신앙 활동 참여도 등 7가지 기준을 통해 명목상 교인을 정의한 결과, 최종 39.5%, 즉 출석교인 10명 중 4명이 명목상 교인으로 분류됐다.

이번 <넘버즈 217호>는 가나안 성도와는 다른 한국교회 내 명목상 교인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우선 명목상 교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규모와 집단의 특성과 신앙 의식을 파악하고자 했다.

한국교회 하락세와 맞물려 명목상 교인은 가나안 성도, 더 나아가 신앙이탈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명목상 교인에 대한 주요 지표가 발표된 것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명목상 교인에 적합한 양육 및 사역 방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조사

###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교회 출석자
조사 방법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On-line Research)
표본 규모	총 1,000명(유효표본)
표본 추출 방법	개신교인 지역/성/연령별 비율에 따른 비례할당추출
표본 오차	± 3.1% (95% 신뢰구간)
조사 기간	2023년 6월 2일 ~ 6월 8일(7일간)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연구 분석	목회데이터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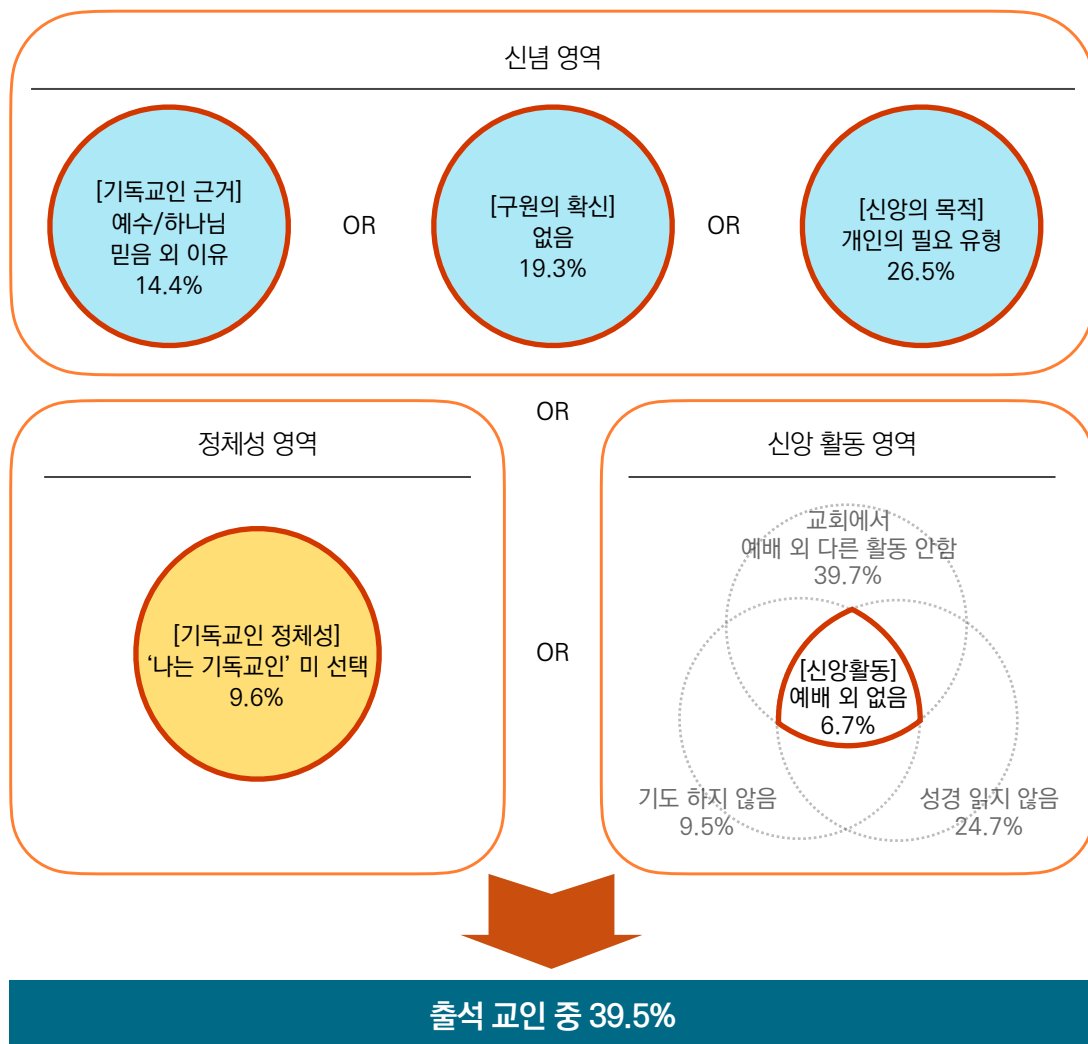
# 01

## [명목상 교인 정의]

### 한국교회 출석 교인 중 '명목상 교인' 비율 39.5%

- ▶ 명목상 교인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영역(신앙 활동 영역, 정체성 영역, 신념 영역)의 질문에서 추출하여 정의하였다.
- ▶ '정체성 영역'은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하지 않은 교인을, '신념 영역'에서는 기독교인 근거가 '예수/하나님 믿음' 외 응답자이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신앙의 목적이 개인의 필요 유형인 교인을, '신앙 활동 영역'은 교회에서 예배 외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성경 읽기/기도를 안 하는 교인으로 정해 이 세가지 영역을 하나라도 충족하는 교인을 명목상 교인으로 책정했다.
- ▶ 위의 세 가지 영역을 통해 '명목상 교인'으로 정의하고, 그 비율을 측정한 결과, 출석 교인의 39.5%가 명목상 교인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명목상 교인 측정 (교회 출석 개신교인)



참조) '2018 로잔 운동'에서 정의한 '명목상 크리스천'(Nominal Christian) 범주

1.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
2.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3. 회심이나 중생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4. 헌신이 없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 ◎ 중직자 4명 중 1명은 ‘명목상 교인’!

- ▶ 명목상 교인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20대 연령대, 미혼, 직분이 낮은 성도, 출석교인이 100~499명인 중형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직분별로 중직자 4명 중 1명(26%)은 명목상 교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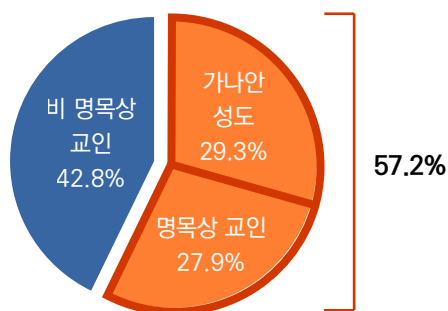
[표] 명목상 교인 응답자 특성 (교회 출석 개신교인, %)

		명목상 교인 비율				명목상 교인 비율				명목상 교인 비율	
성별	남성	45	경제 수준	상/중상	39	출석교회 교인수	49명 이하	35			
	여성	36		중	36		50~99명	36			
연령	19~29세	50	하/중하	43	100~499명		44				
	30대	41	중직자	26	500~1,999명		43				
	40대	37	서리집사	34	2,000명 이상	35					
	50대	37	일반성도	50	신앙 경력	19년 이하	53				
60세 이상	38	교회 출석주기	매주 참석	27		20~29년	40				
	결혼 여부		기혼	37		한 달에 2~3번	67	30~39년	41		
			미혼	47		한 달에 1번 이하	75	40년 이상	28		

## ◎ ‘명목상 교인 + 가나안 성도’ 비율, 한국 개신교인 중 57.2%

-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2023년 개신교인 중 교회 출석자가 70.7%, 가나안 성도가 29.3%였다. 앞에서 교회 출석자 중 명목상 교인이 39.5%로 나타났는데, 이를 가나안 성도까지 포함한 전체 개신교인을 기준으로 하면 27.9%가 된다. 따라서 ‘가나안 성도’와 ‘명목상 교인’을 합하면 전체 한국 개신교인의 57.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한국 개신교인 중 ‘명목상 교인+가나안 성도’ 비율 (전체 개신교인)



\*비 명목상 교인 : 출석 개신교인(70.7%) X 비명목상 교인 비율(60.5%)

\*\*명목상 교인 : 출석 개신교인(70.7%) X 명목상 교인 비율(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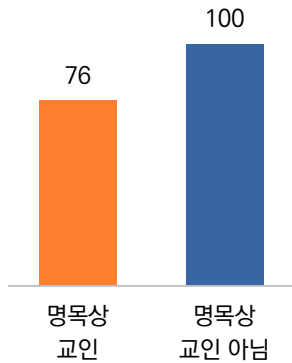
\*\*\*가나안 성도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3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지앤컴리서치, 2023.01.)

#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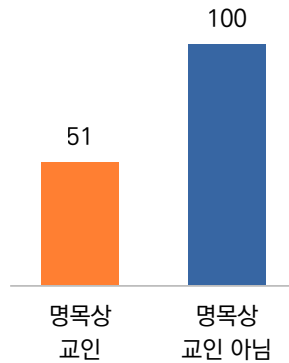
## [명목상 교인의 정체성 인식] 명목상 교인 4명 중 1명, '스스로 기독교인' 단정 못 해!

- ▶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을 때 '명목상 교인'은 76%만이 '그렇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24%('잘 모르겠다' + '아니다')는 '나는 크리스천'이란 인식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구원의 확신 여부를 물은 결과, 명목상 교인의 51%만 '확신한다'고 응답해 절반에 불과했다.

[그림] 스스로 기독교인 인식  
(교회 출석 개신교인, '그렇다' 응답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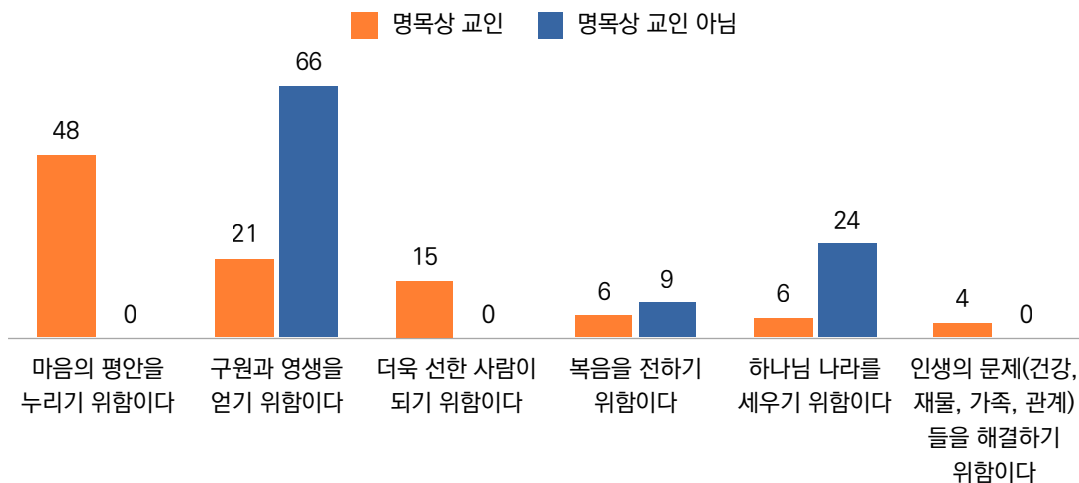
[그림] 구원에 대한 확신  
(교회 출석 개신교인, '확신한다' 응답 비율, %)



### ◎ 신앙의 목적, 명목상 교인은 '마음의 평안', 비 명목상 교인은 '구원과 영생'!

- ▶ 기독교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은 결과, '명목상 교인'은 '마음의 평안'(48%)을 꼽은 비율이 다른 본질적인 이유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비 명목상 교인'은 3명 중 2명이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응답한 것과는 인식의 차이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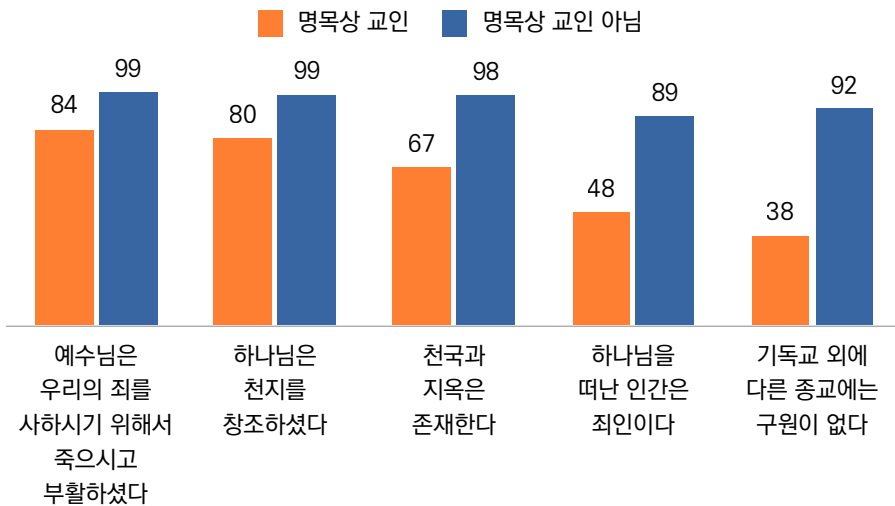
[그림] 기독교 신앙의 목적 (교회 출석 개신교인, %)



## ◎ 명목상 교인 10명 중 6명,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어!

- ▶ 신앙적 주제에 대한 몇 가지 진술문을 제시하고 '명목상 교인'에게 각각의 동의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항목에 대해서는 80% 대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 ▶ 다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인이다'에 대해서는 절반가량만 동의했고, '기독교 외 타 종교에 구원이 없다'에는 명목상 교인 10명 중 4명(38%)만 '그렇다'고 응답해 나머지 10명 중 6명(62%)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신앙적 명제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신앙적 주제 인식 (교회 출석 개신교인, '매우+그렇다' 비율\*, %)



\*4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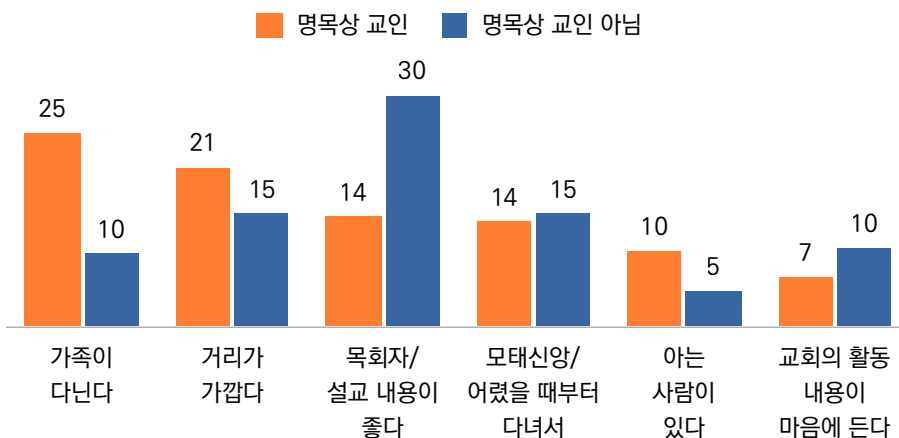
## 03

### [명목상 교인의 교회생활]

## 명목상 교인의 교회 선택 이유, '가족'과 '거리'!

- ▶ 현재 교회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비 명목상 교인'은 '목회자/설교 내용이 좋다'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나, '명목상 교인'은 '가족이 다닌다'(25%)가 가장 큰 이유였고, 다음으로 '거리가 가깝다', '목회자/설교 내용이 좋다' 등의 순이었다. 명목상 교인에겐 '가족'과 '거리' 요인이 교회 선택의 주요 고려 사항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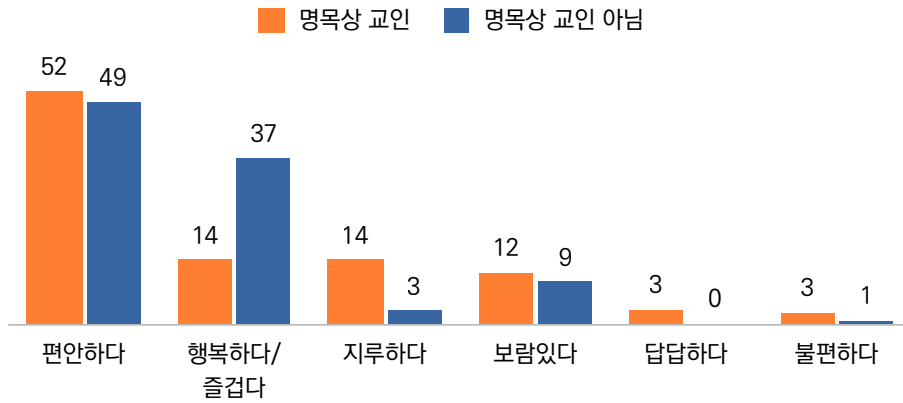
[그림] 현재 교회 선택 이유 (교회 출석 개신교인, 상위 6위, %)



## ◎ 교회에서 받는 느낌, 비 명목상 교인 대비 행복감 ↓, 지루함 ↑

- ▶ 교회에 갔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는지를 물었더니, '편안하다'는 의견이 명목상 교인과 비 명목상 교인 모두 가장 높았으나 차순위로 응답한 '행복/즐거움'에 대해서는 명목상 교인은 14%, 비 명목상 교인 37%로 명목상 교인이 교회 내에서 '행복/즐거움'을 느끼는 경우는 비 명목상 교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지루하다', '답답하다', '불편하다'는 부정적 느낌에 대한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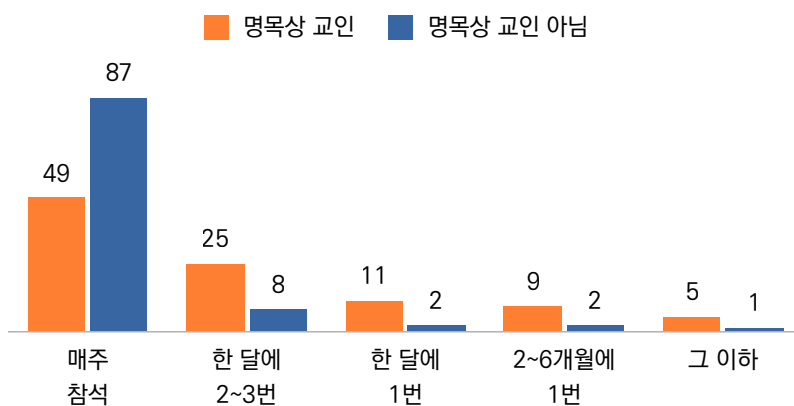
[그림] 교회 갔을 때의 일반적인 느낌 (교회 출석 개신교인, %)



## ◎ 명목상 교인 2명 중 1명만이 매주 교회 출석해

- ▶ 교회 출석 빈도를 묻은 결과, 명목상 교인의 '매주 교회 참석' 비율은 49%로 나타났다. '명목상 교인이 아닌 그룹'의 매주 교회 참석률이 87%이니 절반 가까이 낮은 셈이다. 그 외에 '한 달에 2~3번' 25%, '한 달에 1번' 11% 등의 순으로 응답했고, '한 달에 1번 미만' 참석률이 전체 명목상 신자 7명 중 1명꼴(14%)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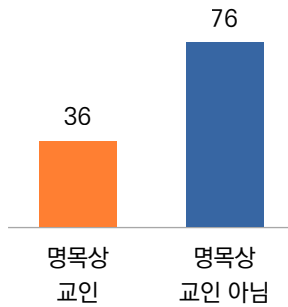
[그림] 교회 출석 빈도 (교회 출석 개신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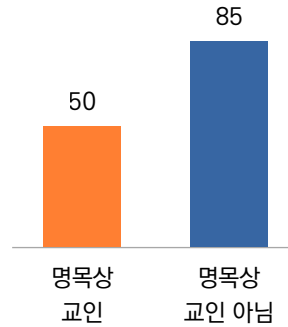
## ◎ 명목상 교인의 예배 외 활동 참여, 비 명목상 교인의 절반에도 못 미쳐!

- ▶ 교회에서 예배 외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명목상 교인'은 36%, '명목상 교인이 아닌 자'는 76%가 '참여한다'고 응답해 교회에서 명목상 교인의 예배 외 타 활동 참여율이 비 명목상 교인보다 절반 이상 낮았다.
- ▶ 교회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을 물은 결과, 명목상 교인은 '참여 의향 있음' 50%로 비 명목상 교인의 대다수(85%)가 참여 의향을 보인 것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그림] 교회 내 예배 외 다른 활동 참여 여부  
(교회 출석 개신교인, '참여하고 있음' 비율, %)



[그림] 양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교회 출석 개신교인, '매우+어느 정도' 의향 있음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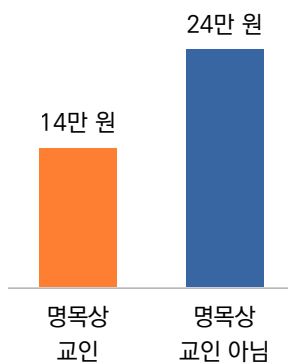


\*4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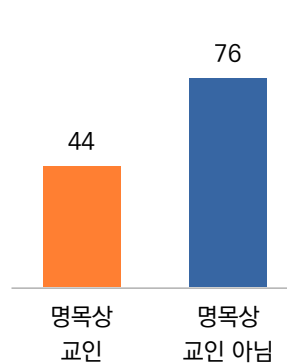
## ◎ 명목상 교인의 헌금 액수, 비 명목상 교인에 크게 못 미쳐!

- ▶ 월평균 헌금액을 물은 결과, '명목상 교인' 14만 원, '비 명목상 교인' 24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 ▶ 한편 십일조 여부를 물었더니 비 명목상 교인은 4명 중 3명(76%)이 '십일조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명목상 교인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만 십일조를 드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월평균 헌금액 (헌금 봉헌자, 미혼자는 개인, 기혼자는 부부공동 기준)



[그림] 십일조 봉헌 여부 (교회 출석 개신교인, '십일조 하고 있음'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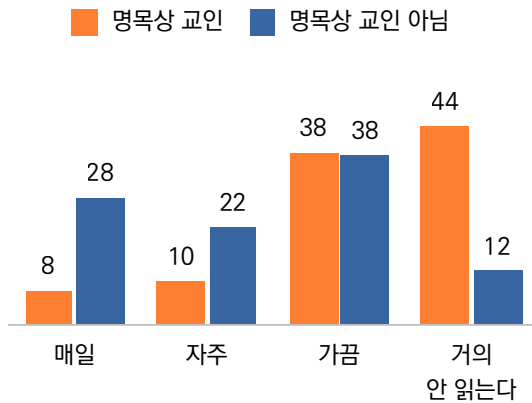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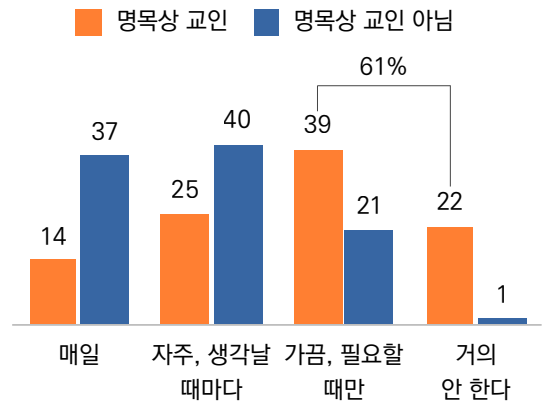
## ◎ 명목상 교인 44%, ‘성경 거의 안 읽는다’!

- ▶ 성경을 읽는 시간을 명목상 교인과 비 명목상 교인 간 비교해 보았다. ‘명목상 교인’의 경우 ‘거의 안 읽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4%로 절반 가까이 되었다. 반면 ‘비 명목상 교인’은 ‘가끔(38%)’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매일’, ‘자주’ 순으로 응답해 명목상 교인과 성경 읽기 시간에서도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 ▶ 기도 시간의 빈도를 살펴본 결과, ‘명목상 교인’은 ‘가끔, 필요할 때만 한다’ 39%, ‘거의 안 한다’ 22%로, ‘명목상 교인’ 5명 중 3명(61%)은 평소 기도 생활을 아예 안하거나, ‘필요할 때만’ 가끔 기도하는 특성을 보였다.

[그림] 성경 읽는 시간 (교회 출석 개신교인, %)



[그림] 기도 하는 시간 (교회 출석 개신교인, %)



\*아래 내용은 본 조사에서 명목상 교인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과 분석 방법이다. 개 교회에서 필요시 아래 설문과 분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명목상 교인’ 선별 질문

[Q1] 귀하께서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르겠다

[Q2] ([Q1]의 ①응답자만) 귀하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②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③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④ 교회를 (자주 혹은 가끔이라도) 다니기 때문에  
⑤ 기타

[Q3] 귀하께서는 현재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Q4] 귀하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더욱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②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함이다  
③ 인생의 문제(건강, 재물, 가족, 관계)들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④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⑥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  
⑦ 기타

[Q5] 귀하는 교회에서 예배 외에 다른 활동(성경공부, 기도회, 친교,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Q6] 귀하께서는 예배시간을 제외하고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

- ① 매일      ② 자주      ③ 가끔      ④ 거의 안 읽는다

[Q7] 그럼,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 ① 매일      ② 자주, 생각날 때마다      ③ 가끔, 필요할 때만      ④ 거의 안 한다

### 응답 결과 분석(명목상 교인 측정 로직)

A : [Q1] ②, ③번 응답자

B : [Q2] ③, ④, ⑤번 응답자

C : [Q3] ②번 응답자

D : [Q4] ①, ②, ③번 응답자

E : [Q5] ②번, [Q6] ④번, [Q7] ④번을 동시에 선택한 응답자

A~E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교인은 이번 조사에서 책정한 기준의 ‘명목상 교인’입니다.

\*Q1=정체성 영역 질문, Q2/Q3/Q4=신념 영역 질문, Q5/Q6/Q7=신앙 활동 영역 질문

# 시사점

명목상 기독교(nominal Christianity)는 주로 탈 기독교 세계(post-Christendom)에 접어든 서구교회의 현상이었지만, 기독교가 전래한 지 4세대가 지난 곳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는 가나안 성도와 탈 교회 현상을 접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도 명목상 기독교는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명목상 교인에 관한 조사는 가나안 성도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가나안 성도는 현재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회가 있는지의 여부로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명목상 교인을 구분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 인식과 생활에 대한 더욱 복합적인 질문을 통해서 추정 가능하다.

로잔운동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범주를 (1)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소속이 없거나'(not affiliated), (2) '규칙적으로 교회 활동이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not practicing), (3) '회심, 또는 거듭남이 없는'(not converted, unregenerated), 그리고 (4) '헌신하지 않고 피상적인'(not committed, superficial) 이라는 네 가지로 제시한다. 이번 명목상 교인 조사에서 위의 네 가지 범주에서 가나안 성도에 해당하는 (1)의 경우를 제외하고, (2)~(4)의 명목상 교인 범주들을 고려해서 한국의 명목상 교인 비율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1) 신념 영역, (2) 신앙 활동 영역 그리고 (3) 신앙 정체성 영역으로 나누어 명목상 교인 규모를 파악하고자 했다. 신념 영역, 즉 자신에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묻는 질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근거', '신앙생활의 목적', '구원의 확신'에 관한 질문들을 명목적 교인의 기준으로 설정했다. 신앙 활동 영역에서는 예배 외의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평소의 기도 생활 및 성경 읽기에 대한 질문들을 통해 '실천하지 않는' 명목상 교인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했다. 여기에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대답을 신앙 정체성의 결여로 인한 명목상 교인에 포함시켜, 최종 39.5%가 산출됐다. 2022년도에 미국 ACS Technologies에서 행한 Personal Faith Journey 라는 이름의 조사는 미국 전역에서 9,500명의 그리

스도인을 대상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과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두 집단을 분류했다. 분류의 기준 질문은 (1)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또는 신앙 모임)에 참석하는지의 여부와 (2) 자신들의 삶에서 신앙이 높은 혹은 가장 지대한 중요성을 지니는지의 여부였다. 이 조사는 두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했다. 그렇게 해서 응답자의 33.3%가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66.7%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분류됐다.

일반적으로 서구권의 명목상 교인 조사는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소위 '가나안 성도'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이번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는 가나안 성도를 제외한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명목상 교인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가장 최근의 가나안 성도 비율이 29.3%가 나왔고, 이번에 파악된 명목상 교인 39.5%를 가나안 성도를 제외한 70.7%에 비례해서 산출하면 27.9%가 나오므로, 가나안 성도를 포함하는 서구식 명목상 교인의 비율은 전체 개신교인의 57.2%가 나온다. 이는 미국의 66.7%에 비해서 약 10%가량 낮은 수치인데,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고려할 때 수긍 가능한 측면이 있다.

명목상 교인의 비율은 남성, 저연령대, 미혼 집단에서 높게 나왔으며, 헌금과 교회 봉사, 소그룹 참여율, 양육모임 참여 의향에서 예상대로 비 명목상 교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참여도를 보여줬다. 기독교 교리에 관한 질문에서 명목상 교인들이 가장 동의하지 못하는 항목은 기독교의 유일성과 인간의 죄인 됨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죄와 구원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기독교 복음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또한 신앙 윤리 의식에서도 명목상 교인들은 비 명목상 교인들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반응을 보였는데, 특히 사주/점/풍수지리에 대해서는 그 격차가 가장 높았다. 이는 인생의 선택과 방향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명목상 교인들의 낮은 신앙 의존도를 드러낸다.

의외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 명목상 교인이 신앙

을 가진 시기가 비 명목상 교인에 비해서 높게 나온 때는 ‘결혼 후’였다는 점이다. 명목상 교인이 모태신앙인과 같이 오래된 기독교 가정에서 양산될 것이라는 통념과 달랐다. 이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특별한 신앙적 결단이 없이도 결혼을 통해 배우자의 종교를 따르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명목상 교인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누군가의 신앙을 등급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인생 여정 가운데 명목상 신앙에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영적 변동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우리 모두가 명목상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는 잠재성이 있음을 깨닫고 이를 교회 내 중요한 사역 과제로 인식하기 위함이다. 수동적이며 불확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명목상 교인이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성도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아예 신앙을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명목상 교인은 교회 내의 양육 대상일 뿐 아니라 선교적 대상이기도 하다.

김선일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실천신학교수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문위원)